

晉州金氏族譜舊跋

夫族譜者之惟我晉州金은 新羅敬順王 第十子 諱는 鍾이며 封
晉城君하시다 是爲分貫之祖 이시며 自羅麗簪繼世로 哲學이
相承하며 中葉에 至晉興君의 諱는 良彦 이시며 氏以后로 數百年
代代孫孫이 離鄉分居 東西南北故로 或對宗族間에 相面하며 問
其幾派幾代孫則 幾代祖先之諱字를 一不知하니 可歎 歎也로다
人不處世하며 天下生無根之人이 地不生無名之草는 自故及今
에 定則之理로다 修譜一節은 卽吾宗之急務也다 於是 宗議를
僉同이 自丁酉秋에로 此旨를 發文하며 各郡 各洞하니 門中一同이
一口同聲으로 合意를 得하고 卽當서을 大韓圖書館을 訪問하며
數箇月星霜을 同館에서 晉金의 元始祖以下 幾代 各派孫의

順序를 整書하였으니 이후代代孫孫이 此譜文을 詳察相問
하며 以後追錄之感을 爲要하니이다

歲在己亥正月之旦 右不肖孫 景熙

(旧名景萬)

謹跋

有司

昌業

(旧名榕業)

晉州金氏楊州派世譜序

한나라 한社會 그리고 한家庭이 바르게 살고 더욱發展하려면 어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바른인식을 토대로한 오늘을 바르게 삼아 내일은
건설해야만 한라. 사람은 누구나 過去와 現在와 未來를 무시하고는 바
른 삶을 갖일수 없다.

우리는 이른바 家門이 좋다는 名門집을 볼때 모두가 家系가 뚜렷했
고 家風이 잡혀있음을 본다 始祖가 누구이며 집안의 系譜가 어떻게 되
어 있는지를 모르는 가정과 그가정인이 보람있는 삶을 營爲하는 사람은 없
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상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자손으로서 도리
일 것이며 修身齊家의 하나일 것이다.

人家之有譜는 猶國之有史乘也라 一家에는 族譜가 있고 國家에는 歷史가
있는거와 같은 것이다. 同姓同本는 百代之親이라 一人의 分身이 數千百

億에 이르니 兄弟의 脈은 先祖로부터 綿綿히 繼承되어 오고 始祖가 같은 것은 古木의 根莖이 같고 大河의 濫觴이 同處인 것과 같은 것이다

비록 나무의 風枯는 같지 않고 물의 淸濁은 다를지라도 뿌리를 더듬고 根源을 서슬러 올라가면 다 같은니 子孫의 賢愚差와 勢力의 強弱은 다를지라도 그 始祖는 곧 一人이니 一人의 分身으로 呼叔呼兄을 못하고 어찌 他人視하리오 그러므로 同祖一孫임을 밝히는 族譜를 編纂하고 重修해 가며 子子孫孫 保存해 가라는 것은 祖上을 彰顯하고 자기의 기록을 남겨 子孫들로 하여금 그 根本을 확실하게 해중에 目的이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 世代의 不察로 家譜의 記錄을 怠慢히 하여 後孫에게 물려 주지 못하여 後孫들 중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느 始祖의 몇代孫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曾祖父、祖父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일이 생길다면 이 얼마나 家門을 爲해서 수치스러운 일이겠는가 이런 意味에

서自己의 血統이 貴重하고 族譜의 所重함을 痛感한 宗中여러분의
所望에 依하여 어려운 過程이지만 敢히 世譜를 訂正하게 이르는것이다
祖上으로부터의 血統과 家系를 明確히 記錄保存하여 後孫에게 넘겨줄
으로서 子孫들로 하여금 祖上의 業績을 거울삼아 이를 偉大한 敎訓으로
알고 努力과 精進하는 길을 배우게 하는 同時 權威있는 血統과 資質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矜持와 自負心을 심어 주며 昭穆과 脈絡을 確立하
여 血統의 秩序를 正立시켜서 孝友를 극진히 할 基礎를 마련해 주려
면 族譜를 編纂해야 한다

族譜는 訂正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단순히 生覺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나 이런수록 體系가 確固한 族譜를 各世帶主가 保存할 必要가
있는것이다

金氏의 本貫은 무려 約六百餘本이 되나 始祖가 뚜렷한 金氏는 約

一〇〇餘本에 不過하다. 金氏를 크게 나누어 駕洛國首露王後裔인 金海金氏系와 新羅閔智大輔公後裔인 慶州金氏系와의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우리 晉州金氏는 金閔智大輔公의 後裔인 新羅金氏系에屬하며 新羅敬順王第八子 鍾 晉城君을 始祖로 受貫 晉州하여 各已分派를 形成하고 있으나 우리 楊州派는 李朝仁祖 때 振武功臣인 晉興君(金良彦)派와 上系가 同系이나 入鄉祖이신 春山公의 上系를 確正할 수 있는 資料가 傳來되지 않아서 晉興君派와 系譜를 直接連結시킬 수는 없으나 다만 入鄉祖의 推定年代로 보아 世代만을 同一하게 修譜함에 이르렀음은 심히 遺憾之事이다. 앞으로 國土가 統一되고 이에 관한 資料가 發掘되어서 晉興君派와 確實한 系譜交流가 있기를 宿願事項으로 남기 두다.

一家의 世譜를 편찬하려면 많은 文籍、資料가 必要한 것이니 데 우리

宗中에는 이를 뒷받침 할 만한 傳來의 文籍이 없으나 多幸하게도
白石面에서 刊行한 辛酉譜와 長興面에서 刊行한 己亥譜를 参照해서
成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 둔다. 우리 楊州派는 先祖墓碑에
記錄된 建立年代를 推算하면 지금으로부터 約四〇〇餘年前에 中始祖
春山公께서 楊州郡 長興面에 最初로 入鄉하심을 推定할 수 있고 그後孫
이 長興面 日迎里 釜谷里 白石面 梧山里 高陽郡 神道邑 梧琴里 서울 思
平區 新寺洞에 定着하여 繁盛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宗中이 同
祖一孫임을 밝히는 家譜를 保有하고 있지 못함을 크게 憂慮하여 이번
宗中代表들의 決議에 依하여 世譜成譜의 宿願을 풀게 된 것이다.
勿論 資料의 未備로 成譜에 미흡한 點도 없지 않겠으나 全力을 傾注
하여 先祖의 根源을 찾고 上系를 거이 正確하게 確立하는데 힘을 기
우렸다.

특히 世譜·修譜에 있어서 積極的으로 協助해 주신 允天(譜名鳳周) 哲喜(哲熙) 泰榮(琬熙) 命煥(在煥) 東一 晶培 宗親에게 感謝하고 財政後援을 해주신 貴煥 宗親에게도 感謝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 所重한 世譜를 모시는 宗親께서는 아끼고 사랑하여 永久히 잘 보존해서 祖上 崇拜의 孝悌의 精神을 기르고 宗族相互間의 友誼의 親睦을敦篤케 하여 家門繁榮에 더욱 분발하기를 促求하는 바이다

歲在 乙丑六月 右 不肖孫 東彬 謹序

晉州金氏世譜

先系

璿源錄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始祖
關智

子勢漢

子阿道

子首留

子郁甫

子仇道

檀紀二三八

官職居西干

官職波干

官職再干

官職再干

年西紀六五年

新羅昔脫解王

九年乙丑三月

四日降臨於金

城西始林

官職大輔公

配摩貞夫人昔氏

再干康造女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仇道

嗣味鄒王

女保反

西紀一七二年

金氏王系初代

休禮夫人

晉州金氏(楊州派)世譜